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대검찰청 대변인실

전화 02-3480-2100 / 팩스 02-3480-2704

보도자료

2025. 1. 21.(화)

자료문의 : 과학수사부

전화번호 : 02-535-9484

주책임자 : 법과학분석과장

제 목

2024년 4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

▣ 대검찰청은 불법 사설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민들로 하여금 가상의 주식거래를 유도한 일당을 첨단 IP 추적 기법으로 특정하여 엄단한 사이버범죄 우수 수사사례 및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한 우수사례 등 총 6건을 2024년 4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.

- ① **[서울동부지검]**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주식을 제공하겠다는 스팸 문자 등을 발송하여 서민들로 하여금 가상의 주식거래를 유도한 사건에서, 스팸 문자메시지 하나를 단서로 총 36대의 서버 압수, 총 272개의 계좌추적, 메신저 대화내역 분석 등의 과학수사를 수행하여 불법 주식 거래 프로그램 개발자와 해당 사이트 판매자를 각각 특정한 후 관계자들을 구속하였습니다.
- ② **[춘천지검 원주지청]** 사경이 수사 중 피해자가 자살하고, '합의 하에 성관계하였다'는 피의자 변소를 탄핵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서, 피해자 부모를 직접 면담하여 사경이 확인하지 않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피해 사실이 기재된 일기장을 확보한 후 필적 감정을 통해 피해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일기장임을 밝히고, 피해자가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를 호소했던 음성 파일도 확보하여 피의자의 변소를 탄핵함으로써 피의자를 특수강간죄로 기소하였습니다.

- ③ **[서울서부지검]** 개정 형사소송법의 허점을 노려 검찰·경찰에서 마약 투약을 자백한 후 법정에서는 내용 부인하여 조서 증거능력을 없애고, 법정 진술까지 거부해 무죄가 예상된 사건에서,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모발을 확보한 후 1cm 단위로 분할 감정하여 범죄 일시에 필로폰 투약이 있었음을 명확히 밝혀 유죄가 선고되도록 하였습니다.
- ④ **[서울북부지검]** 500억 원 규모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조세포탈 사건에서, 휴대전화·컴퓨터 약 20대를 포렌식하고, 약 70개 녹취파일과 약 40개 계좌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과학수사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 자료상 조직과 각 조직원의 역할 및 범죄수익 분배 방법 등을 모두 밝혀 핵심 조직원 3명을 구속하고, 최초로 허위 세금계산서 자료상 조직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·기소하였습니다.
- ⑤ **[인천지검]** 사경이 '피해자 대신 1.4억 원을 해외 송금해주려고 했으나 급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했다'는 초범인 피의자 변소만 믿고 단순 횡령으로 송치한 사건에서 총 16개 계좌를 정밀 분석하고,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배후 주범이 피의자와 함께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것임을 밝혀 모두 사기로 의율·구속하였습니다.
- ⑥ **[창원지검 진주지청]** 피의자가 화재 발생 6시간 전에 건물을 떠났고 알리바이까지 있어 입증이 어려웠으나, 대검 화재분석실에 감정 의뢰하여 지연착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, 피의자에 대한 심리생리검사, 휴대전화 포렌식, 계좌추적 등 과학수사 기법들을 통해 피의자가 고의로 방화한 사실을 명확히 밝혀 기소하였습니다.

※ 상세 선정사유는 '붙임' 참조

▣ 검찰은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범죄 수사에 적극 활용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 ▣

※ 붙임: 과학수사 우수사례 상세 선정사유

순 번	소 속	우수 수사사례
	부 장	
	주임검사	
1	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 수사부	<p>사안 개요</p> <p>○ 스팸신고 메시지 하나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하여 불법 사설 주식거래 사이트가 운영 중인 서버 36대를 압수하여 분석하고, 총 272개의 계좌를 추적하여 사설 주식거래 프로그램 개발자를 특정하였으며, 다시 위 개발자가 사용하는 해외 서버를 원격지 압수수색하여 위 불법 사설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판매한 자를 밝혀내어 이들을 각각 구속기소한 사례</p>
	심형석 (37기)	<p>공소사실 요지</p> <p>○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·운영하고, 총 41,470건의 불법 사설 주식거래 사이트 스팸 문자를 전송하는 등 [자본시장법위반,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]</p>
	서지원 (41기)	<p>선정 사유</p> <p>○ 스팸 문자메시지 하나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하여, 서버 36대 압수, 총 272개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하여 입금액 합계 1,115억 원의 불법 사설 주식거래 프로그램 개발자 및 판매자를 특정하였음</p> <p>○ 차명을 사용하는 범죄 성격상 피의자 특정이 매우 어려운데, 주임검사는 끈질긴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등을 통해 불법 사설 주식거래 프로그램 개발자·판매자를 모두 특정하여 엄단함</p> <p>○ 또한, 압수한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총 28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몰수 또는 추징보전하는 등 불법 범죄수익을 박탈하였음</p>

순 번	소 속	우수 수사사례
	부 장	
	주임검사	
2	원주지청 형사1부	<p>사안 개요</p> <p>○ 피해자 사망으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의자의 변소를 탄핵하지 못해 사경이 불송치 결정을 하자, 검사는 피해자의 부모를 면담하여 피해 사실이 기재된 일기장과 주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호소한 휴대전화를 확보한 후 대검 필적 감정 및 음성파일 분석 등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피의자의 변소를 탄핵하여 특수강간죄로 불구속 기소한 사례</p>
	류주태 (37기)	<p>공소사실 요지</p> <p>○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간 후 커터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 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(특수강간)]</p>
	류미래 (변10회)	<p>선정 사유</p> <p>○ 피해자가 사망하여 강간 혐의 입증이 곤란한 상황이 되자, 주임검사는 피해사실이 기재된 피해자의 일기장 원본을 확보한 후 대검에 필적 감정을 의뢰하여 피해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일기장임을 확인하고,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여 피해사실을 주변에 호소하는 음성파일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의자 변소를 탄핵하였음</p> <p>○ 피해자가 사망하고 수사가 장기화되어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 부모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안내하고 심리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범죄피해자 유족 지원에도 힘씀</p>

순 번	소 속	우수 수사사례
	부 장	
	주임검사	
3	서울서부지검 공판부	<p>사안 개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사단계에서 마약 투약사실을 자백한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의자신문조서까지 내용부인하여 진술 증거가 전무해진 상황에서 공판검사가 법원으로부터 압수 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고인의 모발을 분할 감정하여 범죄 일시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입증하여 마약사범을 엄단한 사례 <p>공소사실 요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24. 5. 중순경 필로폰 1회 투약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(향정)]
	김지영 (36기)	<p>선정 사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에 대하여 자백 하였으나 공판단계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피의자신문 조서를 내용부인하고 피고인신문도 거부하였음 ○ 범죄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무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, 공판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모발을 확보한 후 대검 디엔에이·화학 분석과에 1cm 분할 감정을 의뢰하였음
	이가은 (변6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그 결과 피고인이 체포·구속되었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고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(징역 1년 6월)하는 등 공판단계 에서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마약사범을 엄단

순 번	소 속	우수 수사사례
	부 장	
	주임검사	
4	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 조사부	<p>사안 개요</p> <p>○ 다양한 과학수사 방법을 통해 핵심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부가 가치세 자료상 조직의 실체를 확인하고, 해당 조직을 최초로 형법상 범죄집단으로 의율하여 핵심 조직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총 8명의 조직원에 대해 조직원 가입·활동 및 범죄수익 은닉혐의로 특정하여 수사한 사례</p>
	안광현 (35기)	<p>피의사실 요지</p> <p>○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마치 하도급업체들로부터 하도급 공사 용역을 공급받아 최종 수요처에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, 공급가액 합계 약 500억 원 대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[범죄단체조직, 가입 및 활동,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] 등</p>
	홍민유 (변1회) 박동준 (45기) 김용선 (변6회)	<p>선정 사유</p> <p>○ 휴대전화 총 12대, 컴퓨터 총 7대에 대한 압수 및 디지털 포렌식, 구치소 접견 녹취 약 70개 파일 분석, 대검 자금추적 수사관을 통한 약 40개의 사업자 계좌 분석, 진술 번복을 위한 영상녹화조사 등을 통해 거래의 허위성, 조직 체계, 범죄수익 분배 등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모든 조직원들의 자백 진술을 이끌어냄</p> <p>○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과 영상녹화 등을 적극 활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 조직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로 최초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음</p>

순 번	소 속	우수 수사사례
	부 장	
	주임검사	
5	인천지검 형사2부	<p>사안 개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단순 횡령사건으로 종결될 뻔한 사건을 만연히 처리하지 않고 계좌영장을 청구하여 총 16개의 계좌를 정밀 분석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의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하여 사기 범행의 전말을 밝혀 2명을 직구속한 사례 <p>공소사실 요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피의자들은 공모하여, 지인인 피해자에게 ‘대신 해외송금을 해주겠다’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억 4,000만 원을 송금받음 [사기]
	김희영 (35기)	<p>선정 사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경은 ‘다른 사람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았고 해외송금을 하려고 했다’는 피의자의 변소를 믿고 단순 횡령 혐의로만 송치하였음
	송형진 (42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그러나 주임검사는 사건의 본질을 ‘사기’로 파악한 후 계좌영장을 직접 청구하여 피해금의 흐름과 휴대전화 포렌식의 녹음파일을 분석하였고, 결국 송치된 피의자 이외 주범이 별도로 있음을 확인한 후 이들을 모두 구속하였음 ○ 단순 횡령사건으로 종결될 뻔한 사건에 대해 계좌추적, 휴대전화 포렌식 등의 과학수사를 활용하여 그 범행의 전말을 밝혔음

순 번	소 속	우수 수사사례
	부 장	
	주임검사	
6	진주지청 형사2부	<p>사안 개요</p> <p>○ 화재가 발생하기 6시간 전 리조트에 청소를 위해 방문하였을 뿐 자신이 방화한 사실이 없다는 피의자의 변소에 대해, 지연착화에 의한 방화에 착안, 화재감정을 통해 지연착화 가능성을 입증하고, 심리생리검사, 휴대전화 포렌식, 계좌추적 등 다양한 과학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고의 방화 혐의를 입증하여 기소한 사례</p> <p>공소사실 요지</p> <p>○ 피의자 운영의 리조트 3층에 에탄올 성분인 인화성 물질을 뿌린 후 지연발화 되도록 하여 불이 리조트 전체로 번지게 하고, 피해자 ○○손해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[일반건조물방화,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]</p>
	김미수 (37기)	<p>선정 사유</p> <p>○ 화재가 발생한 리조트 현장 화재 감식 결과에서 인위적 방화 가능성이 확인되어 피의자를 추궁하였으나 피의자는 방화한 사실이 없고 화재 당시 리조트에 있지도 않았다고 변소</p>
	신혜원 (변9회)	<p>○ 주임검사는 화재 당시 피의자가 현장에서 먼 곳에 있던 사실을 확인한 후 '지연착화'에 착안하여 대검 화재수사팀에 '지연착화에 의한 방화 가능성'에 대해 감정의뢰하였음</p> <p>※ 지연착화 : 바로 점화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 점화되는 현상</p> <p>○ 신너와 양초 등을 이용한 재연실험 결과 피의자가 리조트를 떠난 후 약 6시간이 경과한 후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, 심리생리검사 결과(거짓 반응),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피의자의 고의 방화 혐의를 입증하였음</p>